

사회

■ 내일 수능 ... 수험생 이것만은 꼭 지켜라

휴대전화·MP3·디카 'NO'

오늘 예비소집 꼭 발열체크

“휴대전화와 MP3, 디지털 카메라 등은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때마다 각종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57명이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이들은 또 1년간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은 예비소집일인 11일 수험생에게 배포된다.

◇휴대전화는 무조건 안돼 =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렌즈,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전자 관련 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없다.

◇휴대 가능 품목 확인 = 12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신분증과 수험표를 챙겨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필기구는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만 집에서 가져올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 있다. 돋보기와 마스크 등 건강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감독관의 점검을 거쳐 소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법 숙지 =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때는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만약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 시험 종료 후 이의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115명의 부정행위자 중 58명의 수험생이 이 규정을 위반해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홀·짝형 문제지 유형 확인 또 확인 = 감독관이 확인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발생한다. 수험생은 문제지 유형, 수험번호를 정확히 썼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신종플루 특별 시험실 = 수능 예비소집인 11일에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므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나가지 않은 학생은 시험날 고사장 출입 전 따로 발열체크를 받아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다. 또한 신종플루 특별 시험실도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된다. 제 1시험실은 재택 치료중인 확진 수험생용이고, 제 2시험실은 예비 소집일과 시험 당일 신종플루 의심환자 판단을 받은 수험생용이다. 병원 시험장은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수험생으로 희망자가 그 대상이다. 또한 수험생은 수능 당일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이를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교직원 40명 확진·의심 = 광주·전남지역 학생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 정도가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 여부 의사를 밝혔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신종플루 접종 수요조사 결과 광주·전남 학생 53만7천210명 가운데 5.5%인 2만9천563명이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광주는 1만5천916명(6.2%), 전남은 1만3천647명(4.9%)이다. 광주는 접종 대상자 25만8천146명 중 학교와 의료기관 접종 희망자가 각각 23만9천18명(92.6%)과 2천48명(0.8%)이었다. 전남은 27만9천64명 가운데 학교



“아이날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10일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아이 날기 좋은 세상 북구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송광호 북구청장 등 400명의 참가자들이 종이 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위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학생 100명 중 5명

“신종플루 백신 안맞겠다”

교직원 40명 확진·의심

광주·전남지역 학생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 정도가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 여부 의사를 밝혔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신종플루 접종 수요조사 결과 광주·전남 학생 53만7천210명 가운데 5.5%인 2만9천563명이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광주는 1만5천916명(6.2%), 전남은 1만3천647명(4.9%)이다. 광주는 접종 대상자 25만8천146명 중 학교와 의료기관 접종 희망자가 각각 23만9천18명(92.6%)과 2천48명(0.8%)이었다. 전남은 27만9천64명 가운데 학교

의 의료기관 접종은 각 26만3천591명(94.5%)과 1천826명(0.7%)으로 접종 희망자는 모두 95.2%다. 그러나 접종 기피자 중에는 신종플루 확진자로 이미 항체가 생겨 접종이 불필요한 학생이 적지 않아 부작용 등을 우려해 기피하는 경우는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전남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확진 학생이 3천~5천명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현재 전국에서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교사와 직원은 모두 2천 500여 명으로, 광주·전남은 각 17명과 23명으로 집계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안 염전 석면 슬레이트 노출

전국 주요 염전 최대 25%까지 ... 굵은소금서 백석면 검출도

환경운동연합 조사

신안을 포함한 전국 주요 염전 주변에 석면이 최대 25%까지 포함된 석면 슬레이트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소금 제품에서도 백석면이 검출되면서 염전 주변의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관리와 수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신안을 비롯한 전북 부안, 충남 태안, 경기 화성 등 전국의 염전 4곳과 20여개의 소금제품에 대한 석면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시중에 판매되는 15개

의 소금제품과 염전 현지에서 구입한 5개의 소금제품에 대해 석면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신안에서 생산된 1개 소금제품(굵은 소금)에서 미량(농도 1%미만)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신안은 우리나라 천연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염전 주변 수백 여 개의 소금창고와 해수창고(소금물을 가두어두는 창고)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슬레이트에서는 최대 7%에서 최고 25%의 백석면이 검출됐다.

신안과 전북 부안의 염전 주변에서 채취된 슬레이트 조각에서는 백석면은 물론 독성이 강한 갈석면이 최대 4%까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석면 지붕재나 신형 슬레이트로 교체한 일부 소금창고와 해수창고의 경

우 오래된 슬레이트 조각들이 주변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예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부분의 소금창고와 해수창고 주변에서 쉽게 슬레이트 조각을 발견했고, 심지어 염전바다에서도 슬레이트 조각을 확인했다”며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석면 먼지가 소금에 들어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소금 생산이 주로 여름철에 이뤄지는 만큼 겨울을 이용해 방치된 석면을 전량 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2~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폐암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대학 입학설명회·캠퍼스투어 잇단 취소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전남 대학들이 수확능력시험을 치른 고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학설명회 및 캠퍼스투어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조선대는 애초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광주와 전남북지역 고교 3학년 학생 및 교사 1천500여 명을 초청, 대학 체육관과 캠퍼스

지역에서 입학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최근 신종플루 위험 수위를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호남대도 2007년 ‘캠퍼스 투어’에 이어 지난 해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과 홍보이벤트’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채희중기자 chae@



오늘 날씨

비림은 차가워요
흐렸다가 낮부터 맑겠으며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다.

도시	기온
광주	흐린 뒤 맑음 12/19℃
목포	흐린 뒤 맑음 12/17℃
여수	흐린 뒤 맑음 13/16℃
완도	흐린 뒤 맑음 14/19℃
구례	흐린 뒤 맑음 10/20℃
애남	흐린 뒤 맑음 14/19℃
장흥	흐린 뒤 맑음 14/19℃
고흥	흐린 뒤 맑음 13/18℃
순천	흐린 뒤 맑음 13/19℃
영광	흐린 뒤 맑음 11/19℃
진도	흐린 뒤 맑음 14/19℃
남원	흐린 뒤 맑음 11/19℃
목포	흐린 뒤 맑음 9/19℃
흑산도	흐린 뒤 맑음 14/16℃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4.0m	☁	주의	☠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2.0~3.0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2.0~4.0m	☁	주의	☠

“광주교대, 종합대에 통합 반대”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은 10일 “광주교대를 지역 종합대학에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근 국립대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교대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옳다”며 “이는 국가가 주장하는 시너지효과, 대학운영 효율성 제고, 캠퍼스 특성화 등에도 맞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육대학을 하나의 연합대학으로 연계시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또 “초등교원 질 향상을 위해 교육기간을 현행 4년제에서 단계적으로 6년까지 연장하고 학부 정원 감축 시기에 맞춰 박사과정도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120억원의 투입해 국제교사간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 될 ‘국제문화예술교육센터’를 신축해 초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초등교원 양성 프로그램 시범운영과 국제교류 확대, 광주·전남 초등생 대학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자율형 공립고

상일여고 내년 개교

광주 상일여고 등 자율형 공립고 12곳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지정 심사 결과 1단계로 광주

상일여고 등 전국에서 12개교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12월까지 학생을 선발한다. 이들 학교는 교장공모제, 우수교원 초빙제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하고,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환상적인 온천의 나라

일본 오사카, 제주,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특정선별 1

1. 일본 규슈 온천여행

2. 합동으로 떠나는 오사카 여행

₩ 299,000

특정선별 2

서핑으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 98,000~

특정선별 3

아시아나항공으로 떠나는 북경 여행

₩ 389,000~